

## 충남 중등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윤태성

쌍용고등학교

유애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있는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운영 실태와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여건)실태,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세 가지 하위영역(실태, 지원여건, 개선방향)에서 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충남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전체 91개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5명의 특수교사가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결과는 중등특수학급교사가 전환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학생중심의 전환교육을 계획하고, 비형식적 전환평가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환교육내용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학업수행, 대인관계, 상호의존적 일상생활을 주로 우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들이 진로·직업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수학급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전환교육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 적절한 직업교육모형과 직업교육 담당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전환교육, 중등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포함)에 배치되는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2003년 54.7%에서 2008년 66.7%로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학급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교신저자(ary@kornu.ac.kr)

한편 2007년 5. 25일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제21조(통합교육)에서 통합교육을 흐름을 법률로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중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6명,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7명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이 담당해야 할 장애 영역도 기존 9개 영역에서 11개영역으로 확대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따라서 앞으로 특수학급 수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하여 그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왔다(박희찬, 1995; 유애란, 2005; 이승훈, 2004). 이는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특수교육 이후에 통합된 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사는 것, 특히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Halpen, 1994). 고등부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이후의 취업률에 관한 여러 연구를 보면 대략 장애학생의 60% 정도가 비고용 상태로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곽준기 등, 1995; 박희찬 1995; 국립특수교육원, 2005).

전환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전환교육은 통합교육과 함께 특수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수교육법에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환교육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하여 한층 진일보한 전환교육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제23조).

장애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환교육 목표 및 내용 그리고 전략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학급은 더욱 다양해진 여러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된 상황에서 진로 및 직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역할을 안게 되었다(David, Nellie, & Jane, 2006).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환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이정은, 김정효, 2007).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것, 또는 실행수준에 관한 것이었다(김순애, 2005; 박정은, 2007; 정은희, 2005). 이러한 연구들은 특수학급에서 실천되고 있는 전환교육의 현재 수준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인식 및 실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성만(2005)은 전환교육 계획과 실행에 관한 교사 인식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전환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미비(40.2%), 관련기관간의 협력부족(32.2%), 재정적 지원 부족(15.2%), 전문교사의 부족(10.7%), 학부모의 관심부족(1.8%)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즉 프로그램이 미비한 이유,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이유, 학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 등에 대한 접근이 없기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교육 관련 요소들이 현재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그러한 실천의 원인 및 개선을 위한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박희찬(2004)은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생태적 접근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생태적 조건이며,

또한 특수학급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와 생태적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전환교육에 있어서 인종이나 성 등은 전환계획의 질에 의미 있는 결정요인이 아니고, 장애 유형, 거주 지역 등이 전환계획 활동의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owers et al, 2005).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중·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전환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등 특수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환교육의 적절한 시기, 전환 평가 및 전환교육 내용, 학교, 부모, 지역사회,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인사의 전환교육 지원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이들 자원으로부터 기대하는 지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전환교육의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자기결정 기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바람직한 지도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어느 정도 일관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 간 연계성을 갖고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각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현재의 실천정도를 알아보고, 특수학급의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교육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실태와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연건)실태,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여건)실태는 어떠한가?
3.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중등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전체 91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 91명(한 학교에 1명의 교사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중에 설문지에 적절하게 반응한 특수교사 45명을 연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정보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13(28.9)	재직학교 소재지	중·소도시 군, 읍, 면	16(35.6) 29(64.4)
	30대	20(44.4)			
	40대	10(22.2)			
	50대이상	2(4.4)			
성별	남	9(20.0)	근무지 학생의 주된 장애영역	정신지체 학습장애	32(71.1) 13(28.9)
	여	36(80.0)			
특수교육 경력	5년미만	17(37.8)			
	5년이상 10년미만	17(37.8)			
	10년 이상	11(24.4)			
특수학급 경력	5년미만	24(53.3)	근무지의 주된 산업	농업 등 1차 산업 공업 등 2차 산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27(60.0) 3(6.7) 153(3.3)
	5년이상 10년미만	21(46.7)			
	10년이상	0(0)			
합계		45(100)	합계		45(100)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3명(28.9%), 30대가 20명(44.4%), 40대가 10명(22.2%), 50대 이상이 2명(4.4%)으로 2, 30대가 주를 이루었다. 성별은 남자는 9명(20.0%), 여자는 36명(80.0%)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특수교육 경력은 5년 미만이 17명(37.8%), 5년이상 10년 미만이 17명(37.8%), 10년이상 11명(24.4%)으로 대부분 10년미만의 경력자였다. 특수학급 경력은 5년미만이 24명(53.3%), 5년이상 10년미만은 21명(46.7%), 10년 이상은 0명(0%)로서 모두 모두 10년 미만의 경력교사였다. 특수학급이 속해 있는 지역은 군, 읍, 면 등 소규모 지역사회가 64.4%(29명), 중·소도시가 35.6%(16명)였다. 근무지 학생의 주된 장애영역은 정신지체가 71.1%(32명), 학습장애가 28.9%(13명)로 나타났다. 근무지의 주된 산업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60.0%(27명), 공업 등 2차 산업이 6.7%(3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33.3%(15명)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설문지 구성을 위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된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국립특수교육원, 2003)을 기초로 하여, 직업교육 실태 및 전환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의 설문지들과 전환교육에 관한 이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문항을 개발하였다(류현주, 2004; 유애란, 2003; 이원우, 2003; 이재원 외, 2006; 이정은 외 2007; 정보성, 2007).

### 2) 설문지 구성영역과 내용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연구대상자들의 배경정보로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그 항목들은 연령, 성별, 특수교육경력, 근무소재지, 근무지의 학생들의 주된 장애영역, 근무지가 소재된 학교지역사회의 주된 산업을 묻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교사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여건), 전환교육실행을 위한 개선방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와 문항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내용 하위영역	문항유형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전환교육 운영실태	13	전환교육시작시기, 전환교육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 전환평가 실시여부, 실시 전환평가 종류, 전환평가 미실시 이유, 전환교육실행시 중요 우선순위, 전환교육내용 선정 시 고려 우선순위, 자기결정 고려정도, 자기결정 미 고려의 이유, 자기결정 지도방법, 전환교육의 학교급간의 일관성 여부, 전환교육의 학교급간의 비일관성의 이유,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수준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리커트(5점)척도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여건)	9	전환교육을 소속 학교의 지원(여건)정도, 학교지원부족의 이유, 전환교육을 위한 가정(부모)의 지원(여건)정도,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하위영역	문항 수	내용 하위영역	문항유형
		가정(부모)지원부족의 이유,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여건)정도, 지역사회의 지원(여건)부족의 이유,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지원(여건)정도, 지역교육청에 지원요구사항, 특수학급에 필요한 지원 사항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 방향	3	특수학급에 배치된 직업특수교사의 역할,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효과성을 위한 직업교육모형, 성공적인 직업교육실행을 위한 고려사항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선택형(선다형)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교수 2명에게 의뢰하여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이 설문지를 천안시내 특수학급담당 특수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구성 및 어휘들을 적절히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중등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한 달 동안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전체 특수학급에 총 91부를 배부하여 그중 49부(54%)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필요한 정보가 결여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변된 설문지를 제외한 45부(49%)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우편을 통한 설문지 조사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12.0 for window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교사들의 배경정보 및 전환교육 실태 및 지원여건실태, 개선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은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기초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구했다.

### III. 연구결과

#### 1. 전환교육의 인식과 운영실태

전환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바람직한 시기에 관련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환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중등특수학급 특수교사들 중 25명(55.6%)은 ‘초등학교’, 17명(37.8%)은 ‘중학교’, 3명(6.7%)은 ‘고등학교’라고 응답하였고, 중등특수학교 특수교사들 중 34명(64.2%)은 ‘초등학교’, 14명(26.4%)은 ‘중학교’, 2명(3.8%)은 ‘고등학교’, 3명(5.7%)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환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교부터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 전환교육의 바람직한 시작시기 명(%)

전환교육 시작시기	특수학급
초등학교	25(55.6)
중학교	17(37.8)
고등학교	3(6.7)
기타	0(0)
합계	45(100)

전환계획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사들은 전환계획 수립 시 ‘개별학생의 전환목표 달성 능력’을 고려하는 교사가 17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수학급이 속해 있는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을 고려하는 교사가 14명(31.15%),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를 고려하는 교사가 10명(22.2%),’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환교육 실시역량’을 고려하는 교사가 4명(8.9%)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전환계획 및 교육에 관련된 자료’라고 응답하여 전환계획에 관련된 교육 자료도 전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우선순위) 명(%)

전환계획 수립 시 고려순위	특수학급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	10(22.2)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환교육 실시역량	4(8.9)
특수학급이 속해 있는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	14(31.1)
개별학생의 전환목표 달성 능력	17(37.8)
합계	45(100)

24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제9권 4호)

전환계획 수립 시 전환평가를 실시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특수학급 근무자는 22명(48.9%)이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23명(51.1%)이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환평가실시여부는 실시와 미실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 전환평가 명(%)

전환평가실시여부	특수학급
실시	22(48.9)
미실시	23(51.1)
합계	45(100)

전환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표 6>과 같다. 중등 특수학급교사 중 20명(46.7%)교사들은 주로 면접, 설문, 관찰 등 비형식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명(6.7%)의 교사가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하고, 3명(6.7%)의 교사가 지역사회 환경분석, 직무분석 등의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2명(4.4%)가 직업평가도구를 사용하며 1명(2.2%)의 교사가 교육과정 기반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실시하고 있는 전환평가의 방법(\*중복응답 있음) 명(%)

평가 종류	특수학급
면접, 설문, 관찰 등 비형식적 평가*	20(46.7)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등 형식적 평가*	3(6.7)
직업평가도구(예, 발파) 등을 사용한 직업평가*	2(4.4)
교육과정 기반의 평가	1(2.2)
지역사회 환경분석, 직무분석 등의 환경평가*	3(6.7)

전환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환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표 7>과 같다. 그 이유로 중등특수학급교사의 33.3%(15명)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31.5%(14명)가 적절한 평가도구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0.0%(9명)가 평가전문가의 확보가 힘들다는 응답하였고, 8.9%(4명)가 평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 순이었다.



<표 7> 전환평가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중복응답 있음) 명(%)

체계적이지 않은 이유	특수학급
적절한 평가 도구가 없어서*	14(31.1)
적절한 평가방법을 몰라서*	15(33.3)
평가전문가의 확보가 힘들어서*	9(20.0)
평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8.9)

일반적으로 전환교육에 포함되는 9가지 내용 중 학급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우선순위 결과는<표 8>과 같다. 15명(33.3%)의 교사가 의사소통과 학업수행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10명(22.2%), 독립적/상호 의존적 일상생활이 9명(20%), 자기결정기술이 5명(11.1%), 통합된 지역사회 참여가 4명(8.9%), 고용기술이 1명(2.2%), 건강과 체력이 1명(2.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 전환교육내용(우선순위) 명(%)

학급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지는 내용	특수학급
의사소통과 학업수행	15(33.3)
자기결정기술	5(11.1)
대인관계	10(22.2)
통합된 지역사회 참여	4(8.9)
건강과 체력	1(2.2)
독립적/상호 의존적 일상생활	9(20.0)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0(0)
고용기술	1(2.2)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 훈련	0(0)
합계	45(100)

<표 9>는 특수학급에서 교사가 내용을 선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학교 교육과정 및 교사의 판단이 16명(35.6%)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여건(연계기관 및 업체)에 13명(28.9%)이, 개별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12명(26.7%)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의를 통해 4명(8.9%)이 각각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9> 내용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순위) 명(%)

내용 선정 시 고려사항	특수학급
학교 교육과정 및 교사의 판단	16(35.6)
개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사항	12(26.7)
지역사회 여건(연계기관 및 업체)	13(28.9)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의를 통해	4(8.9)
합계	45(100)

교사들이 전환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기결정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고려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기결정기술 고려 명(%)

자기결정	특수학급
매우 중요한 요소	32(71.1)
그저 그렇다.	12(26.7)
잘 고려하지 못함	1(2.2)
합계	45(100)

자기결정기술을 전환교육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32명)였으며,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26.7%(12명), 잘 고려하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2.2%(1명)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그저 그렇다’ 라거나 ‘잘 고려하지 못 한다’라고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잘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사들은 우선 전환교육 ‘프로그램마다 자기결정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17.8%(8명)가 응답하였으며, ‘자기결정 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려움’에 6.7%(3명)가, ‘자기결정 기술에 대한 개념의 모호’ 4.4%(2명)가 각각 응답하였다.

<표 11> 잘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 명(%)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	특수학급
무응답	0(0)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개념의 모호	2(4.4)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자기결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	8(17.8)
자기결정 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미흡	3(6.7)
자기결정 기술의 중요성을 못 느낌	0(0)
기타	0(0)
합계	13(100)

자기결정 기술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28명(62.2%)의 교사들은 우선 ‘부모, 교사 및 관련 인사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11명(24.4%)의 교사가 ‘기존의 교과 수업이나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3명(6.7%)의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의도적으로 가르친다’에, 2명(4.4%)의 교사가 ‘부모가 자기결정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를 중심으로 가르친다’에, 1명(2.2%)의 교사가 ‘기존의 교과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친다’에 각각 응답하였다.

<표 12> 바람직한 자기결정기술 지도방법 명(%)

지도방법	특수학급
무응답	0(0)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의도적으로 가르침	3(6.7)
부모, 교사 및 관련 인사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	28(62.2)
기존의 교과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침	11(24.4)
부모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를 중심으로 가르침	1(2.2)
기타	2(4.4)
합계	45(100)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전환교육 내용과 또한 프로그램이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3>과 같다.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6.7%(3명)가 일관성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3.3%(42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일관성 있는 전환교육 실시여부 명(%)

실시여부	특수학급
그렇다	3(6.7)
그렇지 않다.	42(93.3)
합계	45(100)

이렇게 전환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사들은 전환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 우선 ‘표준화된 교육과정 미흡’(73.3%, 35명), 다음으로 ‘특수학급 교사들 간 전환교육에 대한 공통된 인식공유 미흡’(46.7%, 21명)을 들고 있으며 그밖에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의 미흡’(20.0%, 9

명), ‘학급 담당자의 잦은 이동’(17.8%, 8명), ‘기타의견’(6.7%, 3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학생의 환경과 연계가 부족하다’, ‘전환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다’, ‘전환의 이해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14> 체계적이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있음) 명(%)

체계적이지 않은 이유	특수학급
특수학급 교사들 간 전환교육에 대한 공통된 인식공유의 미흡*	21(46.7)
표준화된 교육과정 미흡*	35(73.3)
학급 담당자의 잦은 이동*	8(17.8)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의 미흡*	9(20.0)
기타의견*	3(6.7)

직업 및 진로교육에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정도는 <표 15>와 같다.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이용한 중요도 질문에서 교사들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 4점 이상(중요함)의 반응을 하였다. 그러나 실행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직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직업평가 직업경험에 있어서는 평균 2점대의 실행정도(거의 실행되지 않음)를 나타냈고, 직무개발, 지역사회 고용정보 획득, 직업실습장 개발, 취업 후 사후 지도는 평균 1점대(전혀 실행되지 않음)의 실행정도를 나타냈다.

<표 15> 진로 및 직업교육 중요도 및 실행도

중요도		내 용	실행정도(여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20	.869	직업교육을 위한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다.	2.82	1.193
4.13	.894	학생에게 적절한 직업평가가 이루어진다.	2.29	.920
4.16	.963	학생은 졸업 전에 다양한 직업의 경험을 가진다.	2.11	1.049
4.09	.996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무개발이 이루어진다.	1.84	.796
4.04	1.127	지역사회의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다.	1.76	.743
4.07	1.116	직업실습을 위한 사업장이 개발되어 있다.	1.40	.618
4.16	1.205	취업 후 사후지도가 이루어진다.	1.49	.757

## 2.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여건)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역교육청의 지원(여건) 및 지원(여건)이 부족한 이유, 바라는 점 등에 관한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환교육을 위한 소속 학교의 지원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다. 전환교육을 위한 소속 학교의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 특수학급 근무자는 ‘부족하다’에 51.5%(23명) ‘보통이다’에 35.6%, ‘충분하다’에 13.3%(6명)가 각각 응답하였다.

<표 16> 전환교육을 위한 소속 학교의 지원 명(%)

학교의 지원	특수학급
미응답	0(0)
충분하다	6(13.3)
보통이다.	16(35.6)
부족하다	23(51.1)
합계	45(100)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학교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응답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는 ‘과다한 행정적 업무’가 48.9%(2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통합담임 등 일반교사의 이해 및 협조부족’이 37.8%(17명), ‘관리자의 이해 및 협조부족’이 33.3%(15명), ‘시설, 설비, 재정 등의 부족’이 6.7%(3명), ‘기타’가 2.2%(1명)의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전환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부족’, ‘중학교에도 전환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교사의 이해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17> 학교지원 부족이유(\*중복응답 있음) 명(%)

학교지원 부족이유	특수학급
통합 담임 등 일반교사의 이해 및 협조 부족*	17(37.8)
관리자의 이해 및 협조부족*	15(33.3)
과다한 행정적 업무*	22(48.9)
시설, 설비, 재정 등의 부족*	3(6.7)
기타*	1(2.2)

특수교사들이 전환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원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특수학급에서 전환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정의 지원(여건)에 대해서 특수학급교사들은 ‘보통이다’ 48.9%(22명)에, ‘부족하다’에 44.4%(20명), ‘충분하다’에 6.7%(3명)가 각각 응답하였다.

<표 18> 전환교육을 위한 가정의 지원(여건) 명(%)

가정의 지원(여건)	특수학급
충분하다	3(6.7)
보통이다.	22(48.9)
부족하다	20(44.4)
합계	45(100)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선택한 가정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표 19>와 같다.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첫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64.4%(29명)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55.6%(25명), 전환교육관련 정보의 부족'이 44.4%(20명), '전환교육의 이념과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42.2%(19명), '학교(교사)와의 협력체제 부족'이 33.3%(15명), '기타의 견'이 2.1%(1명)였다.

<표 19> 가정지원 부족이유(\*중복응답 있음) 명(%)

가정지원 부족이유	특수학급
전환교육의 이념과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19(42.2)
학교(교사)와의 협력체제 부족*	15(33.3)
전환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	20(44.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9(64.4)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25(55.6)
기타의견*	1(2.2)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여건)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20>과 같다. 특수학급 근무자들은 '부족하다'에 73.3%(33명), '보통이다'에 24.4%(11명), '충분하다'에 2.2%(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0>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여건) 명(%)

지역사회지원	특수학급
충분하다.	1(2.2)
보통이다.	11(24.4)
부족하다.	33(73.3)
합계	45(100)

지역사회 지원(여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선택한 지역사회 지원 부족이유는 <표 21>과 같다.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전환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지역

에 없거나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68.9%(31명)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에 51.1%(23명), ‘지역사회가 장애 및 전환교육 활동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다’에 33.3%(15명), ‘일과 중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학교 관리자 등의 부정적 인식’이 26.7%(12명), ‘전환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의 협조부족’이 22.2%(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1> 지역사회지원 부족이유(\*중복응답 있음) 명(%)

지역사회지원 부족이유	특수학급
전환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지역에 없거나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짐*	31(68.9)
일과 중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학교 관리자 등의 부정적 인식*	12(26.7)
지역사회가 장애 및 전환교육 활동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음*	15(33.3)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	23(51.1)
전환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의 협조부족*	10(22.2)

전환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2>와 같다. 특수학급교사들은 60%(27명)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고, 40%(18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무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표 22>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교육청지원 명(%)

교육청지원	특수학급
충분하다.	0(0)
보통이다.	18(40.0)
부족하다.	27(60.0)
합계	45(100)

담당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지역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교사들은 첫째, 전환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75.6%, 34명)을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환관련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전반적 지원(71.1%, 31명), 셋째, 직업 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지원(66.7%, 30명), 넷째, 학급에 전환교육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배치(37.8%, 17명), 다섯째, 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46.7%, 21명)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면단위 특수학급을 벨트형으로 묶어서 직업에 관련한 시설 및 설비의 확충이 필요하며 개개의 특수학급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관련기관의 연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3> 지역교육청에 바라는 지원 사항(중복응답 있음) 명(%)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 사항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환관련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전반적 지원*	32(71.1)
전환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4(75.6)
직업 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지원*	30(66.7)
학급에 전환교육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배치*	17(37.8)
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	21(46.7)
기타의견*	2(4.4)

현재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의 계획과 실행과 관련하여 특수학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표 24>와 같다.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첫째,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37.8%, 17명)을 가장 바라고 있으며, 둘째, 특수학급에 대한 전환교육 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충(31.1%, 14명), 셋째, 학교, 부모,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수립(22.2%, 10명), 넷째 지역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지원과 장학(6.7%, 3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협력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직업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4> 특수학급에 필요한 지원 사항 명(%)

지원 사항	특수학급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연수, 직업기능 연수 등)	17(37.8)
특수학급에 대한 전환교육 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충	14(31.1)
학교, 부모,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수립	10(22.2)
지역 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지원과 장학	3(6.7)
기타	1(2.2)
합계	45(100)

### 3.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교사의 역할, 직업교육 모형, 현재 필요한 지원 사항 등과 관련된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2007년도에 충남지역에 임용된 직업특수교사의 역할에 관한 응답은 <표 25>와 같다. 교사들은 직업교사가 첫째, 직업평가, 훈련,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75.6%, 34명)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관련 기능의 지도(48.9%, 22명), 셋째,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 훈련(44.4%, 20명), 넷째, 학교가 아닌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직업관련 업무 전담(20%, 9명)등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지역기관 협력(연계)'



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5> 직업교육전담교사의 역할(\*중복응답 있음) 명(%)

직업교육 전담교사의 역할	특수학급
직업관련 기능의 지도*	22(48.9)
직업평가, 훈련,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	34(75.6)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 훈련*	20(44.4)
학교가 아닌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직업관련 업무 전담*	9(20.0)
기타의견*	2(4.4)

특수학급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모형에 대한 설문결과 는 <표 26>과 같다. 응답자중 46.7%(21명)가 특수학급은 직업 준비 및 직업생활 등을 지도하고 실제적인 직업기술, 취업 등의 업무는 관련기관(예, 복지관, 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하는 모형을 선호하였고, 42.2%(19명)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환교육팀(가칭)을 시·군별로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 사후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모형을 선호하였다. 8.9%(4명)는 특수학급에 직업교사를 배치하여 직업 관련된 업무(평가, 훈련 취업, 사후 지도 등)를 담당하게 하는 모형을 선호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환교육팀(가칭)을 시·군별로 설립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 사후지도, 직업별 지역사회 연계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수학급은 자체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26> 특수학급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모형 개발 명(%)

직업교육 모형	특수학급
1. 특수학급에 직업교사를 배치하여 직업 관련된 업무(평가, 훈련 취업, 사후지도 등)를 담당하게 하는 모형	4(8.9)
2. 특수학급은 직업 준비 및 직업생활 등을 지도하고 실제적인 직업기술, 취업 등의 업무는 관련 기관(예; 복지관, 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하는 모형	21(46.7)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환교육팀(가칭)을 시·군별로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 사후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모형	19(42.2)
4. 기타	1(2.2)
<b>합 계</b>	<b>45(100)</b>

현재 직업교육 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설문응답결과는 <표 27>과 같다. 응답자들은 첫째로, ‘직업평가, 직업교육, 직무개발 등 취업 및 고용에 관한 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교내, 교외)’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각각 31.1%, 14명), 둘째,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와 ‘직업교사 등 전문인력의 확대’를 필요로 하며(각각 15.6%, 7명), 셋째, ‘부모·지역사회 인사 등 관

런 인사들과의 협조'(6.7%, 3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직업교육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우선순위) 명(%)

내 용	특수학급
직업평가, 직업교육, 직무개발 등 취업 및 고용에 관한 지원	14(31.1)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교내, 교외)	14(31.1)
직업실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확보	7(15.6)
직업교사 등 전문인력의 확대	7(15.6)
부모·지역사회 인사 등 관련 인사들과의 협조	3(6.7)
<b>합 계</b>	<b>45(100)</b>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 중등특수학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된 내용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의 운영실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 지원(여건) 실태, 중·고등학교 전환교육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중등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실태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환교육의 인식과 운영실태

전환교육 운영 실태와 관련된 본 연구의 초점은 전환교육의 시작시기, 계획 수립, 전환평가, 전환교육내용, 자기결정기술, 전환교육의 내용 및 학교급간 일관성, 진로 및 직업교육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많은 중등 특수학급의 교사들은 전환교육의 시작은 초등학교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전환교육의 개념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장애가 점차 증증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상생활적응 과 지역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습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령 전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하 여 전체 학령기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는 Sitlington, Clark 와 Kolstoe(2006)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환교육은 되도록 초등학교 또는 학령기 이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직업교과(실과)가 초등학교

5, 6학년에 배치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법적인 측면에서 전환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전환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환계획 수립 시 교사들은 주로 개별학생의 전환목표 달성능력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목표 달성능력을 파악하려면 전환평가가 필요하며, 전환평가는 되도록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Clark, 1998).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등특수학급 현장에서 전환평가를 실시하는 교사는 약 50% 정도였다. 그것도 평가의 방법은 주로 면접, 설문, 관찰 등 비형식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육과정 기반의 평가, 지역사회 환경분석, 직무분석 등의 환경평가와 직업평가 사용은 저조하였다. 전환계획이 적절히 계획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평가와 환경평가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평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환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들은 주로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몰라서라고 하였고, 적절한 평가도구가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전환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전환평가도구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담임교사, 직업교사 및 학교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급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지는 전환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로 선택되는 것은 주로 의사소통과 학업수행, 대인관계, 독립적/상호 의존적 일상생활, 자기결정 기술 등이었다. 반면에 고용기술,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 훈련 등의 영역은 우선순위에서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에 직업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학생 및 부모들도 취업 및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분석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환교육의 활동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Sitlington, & Clark, 2006). 또한 이러한 전환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사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많았고 그 다음은, 개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사항, 지역사회 여건(연계기관 및 업체) 등이었다. 좀 더 우선 개별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의를 통해 전환교육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McNair, & Ruch, 1990).

성공적인 전환교육의 핵심요소로 여겨지는 자기결정 기술에 관하여 교사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비중 있게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 기술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모, 교사 및 관련 인사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결정 기술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자기결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자기결정

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환교육프로그램 구안 시 자기결정 기술이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결정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류현주, 2003). 또한 장애 학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에게도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Wehmyer, Argan, & Hughes, 1998).

대부분의 충남의 특수학급교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간에 있어서 전환교육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 미흡, 특수학급 교사들 간 전환교육에 대한 공통된 인식공유의 미흡 등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효과를 떨어트리게 되고,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전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환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침이 필요하다. 즉,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전환교육 운영방법과 중·고등학교 과정별, 학년별로 전환교육 지도내용에 수준을 위한 지침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새로 시행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내용과 더불어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환교육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중요하므로 중등특수학급 담당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교육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등특수학급의 교사들은 특수학급의 직업 및 진로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직업교육과정 체계화, 직업평가, 직업체험, 직무개발, 고용시장정보, 직업실습장 개발, 사후지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들이 특수학급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러한 영역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유애란, 2006). 특수학급은 주로 한 학교에 1학급씩 설치되며 교사 1인에 의해 모든 과정이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교과, 생활지도, 직업지도, 특수교육 행정업무, 소속 학교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환교육 전담하기 어렵다. 특수학급 전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학급당 교사비율을 높여야 한다.

## 2.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 지원(여건) 실태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의 입장에서 전환교육을 실행할 때 관계되는 지원영역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담당교육청 등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련된 영역의 지원이나 여건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지원에 대해, 지역사회 지원(여건)에 대해 지역교육청 지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학급의 전환교

육 실행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학급에서 전환교육을 실행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지원에서는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학교지원에서는 과도한 행정적 업무, 통합 일반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이해 및 협조 부족, 지역사회 지원에서는 전환관련 시설이 없거나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주된 부족 이유로 들었고, 교육청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가장 크게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특수학급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관련 기관인 교육청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내의 특수교육지원센터(전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총체적인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학급 담당교사들도 전환교육을 적절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가 되도록 교사의 전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인적자원, 일반학교의 관리자 등의 전환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인식개선과 지원방법을 지도하는 연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유애란, 2008).

### 3.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

충남 중등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전환계획의 수립 및 지도, 전환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학급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모형 및 직업교사의 역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에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연수, 직업기능 연수 등), 특수학급에 대한 전환교육 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충, 학교, 부모,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수립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환계획 수립 및 지도에 필요한 전환 평가, ITP 작성, 직업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전환교육은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 과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연수,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수학급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여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이는 형식적인 협력관계가 아닌 업무 협약 등을 통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교육장, 관련 지역사회 기관장, 부모회 등이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자들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각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강점을 타 기관에 제공하게 되고 약점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전환교육 실행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 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직업평가, 직업교육, 직무개발 등 고용에 관한 지원 사항이었다.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교내, 교외), 직업교사 등 전문인력의 확대, 직업실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확보,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관련 인사들과의 협조 순이었다.

한편 특수학급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모형 개발에 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특수학급은 직업 준비 및 직업생활 등을 지도하고 실제적인 직업기술, 취업 등의 업무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는 모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환교육팀(가칭)을 시·군별로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사후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모형을 선호하였다.

개별 특수학급에 충분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직업교육 및 취업 등의 역할을 해줄 관련기관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바람직한 모형은 지역교육청 안에 또는 기존의 특수학교 안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환교육 팀(센터)이 구성되어 직업 및 전환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충남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임용된 직업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교사들은 직업평가, 훈련,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와 직업관련 기능의 지도 등의 역할을 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 중 일부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직업 전환교육관련 지원역할을 하고, 교육청은 지원센터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거나 지역사회 내에 산업현장 실습처나 지역사회현장 실습처를 개발해주어 각 학급에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행·재정·인적 자원 지원을 위한 체계 또한 개발해야 한다.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은 인근 특수학교에 위탁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독자적인 물리적 토대를 갖추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마다 중심 특수학급을 집중 육성하여 인근의 특수학급에서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산업체 과견학급 설치·운영, 직업·전환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과도 상충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라 생각된다(충청남도교육청, 2007; 충청남도교육청, 2008).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환교육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전환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사이에 충분한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환교육은 교육이 실천되는 장의 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환교육 실천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의 시각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하다. 전환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의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환교육을 바라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

의 시각에서 전환교육과 관련된 각 요소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전환교육을 위한 생태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현재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그 지역사회는 장차 장애학생이 중등교육 이후 살아갈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생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학생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소규모 지역단위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특수학급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및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직업교육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환교육관련 주체들의 의견이 수렴된 실현 가능한 직업교육 모형에 대한 탐색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교육인적자원부(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8).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08-3호.
- 곽준기, 박희찬, 정찬근, 정덕채, 김숙경(1995). **지체장애인의 전환과정 결과에 관한 종합적 분석**: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추적조사를 중심으로. 삼육재활센터.
- 국립특수교육원(2003).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운영 내실화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200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 김순애(200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부모의 전환교육 인식조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현주(2003). **초등부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운영에 대한 교사인식**.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박정은(2007). **고등부 특수학급 교사들의 전환교육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찬(1995). 특수학급 전환교육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직무연수**, 231-251.
- 박희찬(2004). 특수학급 전환교육 방향. **2004 직무연수 제 6기 자료집**, 국립특수교육원, 243-250.
- 유애란(2003). 전환교육에 있어 발달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직업재활연구**, 13(2), 183-209.
- 유애란(2005). 전환교육관점에서 본 특수교육의 직업교육 실태 및 방향. **직업재활연구**, 15(2), 177 - 192.
- 유애란(2008). 성공적인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방안. **현장특수교육**, 15(3). 국립특수교육원.
- 이성만(2005). **전환교육 계획과 실행에 대한 특수교사 인식실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우(2003).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특수교육연구**, 10(1), 105-129.
- 이승훈(2004). **전환교육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재원, 박명도, 김현중(2006).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의 실태와 정책지원방안. **특수교육연구**, 13(1), 265-287.

- 이정은, 김정효(2007).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직업재활연구*, 17(1), 147-174.
- 정보성(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전환교육 실태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5211-531.
- 정은희(2005). **천안, 아산지역 정신지체 청소년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충청남도교육청(2007). **2007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충청남도교육청(2008). **200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Clark, G. M.(1998). *Assessment for transition planning*. Austin, TX: Pro-Ed
- David, W. T., Nellie, P. A., & Jane, M. E.(2006). *Transition Methods for Youth with Disabilities*. New Jersey Columbus OH :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Halpern,, A. S.(1994).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to adult life: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15-124
- McNair, J. & Rusch, F. R.(1990). Parent involvement in transition programs. In F. R. Rusch, (Ed.), *Research i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and transitional employment*.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 Sitlington, P. L., & Clark, G. M.(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Person Education, Inc.
- Pierangelo, R., & Giuliani, G.A.(2004). *Transition services in special education: A practical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 Powers, K. M., Eleanor G., Geenen, S. J., Powers, L. E., Balandran, J. & Plamer, C.(2005). Mandates and effective transition planning practices reflected in IEP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28(1). 47-59.
- Whemeyer, M. L., Argan, M., & Hughes, C. (1998). *Teaching self-determina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ic skills for successful transi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 A Study on Transition Education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lasses and its Improvement in Chungnam Province

**Yoon, Tae Sung**

Ssangyong High School

**Yoo, Aeran**

Korea Nazaren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transition education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lasses and improvement this system in Chungnam province. A survey was conducted by forty-five teachers working for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lasses in Chungnam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irty-five items which belonged to one of three domains of transition education such as demographic background, transition perception and practice, supports(condition) for transition practice, and improvement for transition education . Findings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cognized that transition educations should be started from elementary school level.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s planned by student need and preferences, informal transition assessment is usually used, and teachers generally teach communication, academic perform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terdependent daily living. Teachers perceived transition education is important, but its practice was very low. Second, most of the teachers felt that there were not sufficient supports(or condition) from school, home, community, and education office to improve this situation. Last, for a vocational education model which is fit for special classes, teachers prefer a model that special teachers teach vocational readiness, vocational life, and the duties such as vocational skills, employment committed to the relative organizations. For practice of vocational education, first of all,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in or out of school) should be built.

**Key Words** : Transition Educatio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lass, Career·Vocational Education

논문 접수: 2008. 11. 5    심사 시작: 2008. 11. 18    게재 확정: 2008. 12. 22